<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

“ 동부그룹의 비도덕적 기업합병 ”

현대와 같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성숙된 사회에서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경쟁력이고, 경쟁력이 열악하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기업을 폐쇄하거나 경쟁력이 강한 기업으로 합병, 종말을 고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땅에 떨어져 도산이나 흥망에 이르기 전에 경쟁력이 취약한 사업부문을 정리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취약부문 또는 경쟁력 하위부문을 기업간에 교환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M & A가 성행하고 있다.
94년초 미국 Dupont과 영국 ICI간에 나일론사업과 아크릴사업을 M & A, 상호 취약부문을 정리하고 경쟁력이 강한 부문을 보완해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Dupont 이나 ICI는 세계 굴지의 화학기업으로 경쟁력부문에서는 어느 기업보다도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사업성 강화라는 명제 앞에서는 서슴없이 M & A를 추진한 것이다.
세계적인 화학기업간 아니 다국적기업간 M & A는 Dupont-ICI 간의 사업교환 뿐만 아니라 UCC · Hoechst · BASF · Enichem 등 세계적인 기업들간에도 종종 있는 일이다. 이 기업들은 자본주의 논리상 경쟁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기업을 정리하거나 사업부를 교환 · 매매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을 정리하거나 사업을 매매하는 일이 결코 싶지 않다. 그것은 아직까지 기업의 개념이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기업주가 사업을 창업하고 경영에 나서게 되면, 그 기업은 창업주와는 별개의 개념이 아닌 기업=사업주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고 기업의 성장과 부침이 사업주의 절대적인 영향아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나 투자신탁 등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해줄 때에도 해당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담보능력이나 사업영위능력, 신용도를 우선 고려하는 비과학적 판단이 관행화되어 있다. 즉 사업주 개인의 능력을 사업의 성패와 직접 연관시키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정치적 · 정책적 판단이 이보다 앞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업성이나 사업주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이나 권력층과 친분이 두텁거나 압력이 가해지면 이유를 불문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비합법적 판단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그만치 우리나라는 비과학적 · 비합리적 경영관계가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보호는 일정부분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초창기 기반이 취약한 시기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사업을 확장, 견실하게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느누가 사업추진에 열정을 바치고 사업의 견실화에 몸부림치겠느냐는 설득력이 먹혀들어가고 있다.
또 아직까지는 창업주만큼 애착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대리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창업주 보호의 명분이 되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기업이 규모화되고 사업이 다양화되며 국제경쟁에 노출되는 시기가 되면 이러한 논리가 먹혀들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동부그룹이 한농그룹을 인수한 것은 어떠한가. 한농이 계열사 12개를 포함해 사업이 부실해 경쟁력을 상실한 때문인가, 아니면 장래적으로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는 국가경제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가.
한농은 농약원제를 생산하는 비교적 사업성이 충실한 기업이고, 계열사들 역시 사업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주주가 양분돼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때문에 94년 중반부터 M & A설이 꾸준히 나돌았고 H그룹의 인수설이 파다했었다. 그것은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또다른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동부그룹이 양대주주중 한쪽과 손잡고 한농을 꿀꺽해버린 것이다. 그것도 한 회사만이 아닌

12개 회사를 단 한번에 말이다. 명의가 불분명한 투자신탁의 편법 주식투자를 이용해서 말이다. 한국비료 인수의 꿈이 무산된 보복이라도 하는냥. 이래서야 그 누가 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천신만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는가.

사업가는 장사꾼과 다르고, 해서는 안되는 분문율이 존재한다.

<화학저널 1995/3/20>